

식료품 소비구조의 분석

—소득을 중심으로(1975~1985년)—

An Analysis of the Food Consumption Expenditure Patterns: 1975~1985

영남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시간강사 김 미 향

교 수 한 재 숙

Dept. of Home Management, Yeung Nam University

A part time lecturer; Me Hyang Kim

Prof.; Jae Sook Han

<목 차>

I. 서 론	V. 소득계층별 식료품 소비지출
II. 이론적 배경	VI. 결 론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IV. 연도별 식료품 소비지출	

<Abstract>

This study attempts to analyse the food consumption expenditure patterns of Wage-Earner's Households in terms of the changes in income during 1975~1985. For the purpose of these time-series analysis and cross-section analysis, household survey data —'Annual Report on the Family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was used.

The main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proportion of the food expenditures has decreased with the increase of income in the city families during 1975~1985.

The Income-Elasticity and limit spending habits has decreased with the increase of income in the city families during 1975~1985.

2. Analyzing the structure of the food consumption of each income class, the results reflected the Engel's Law. That is to say, the higher income was, the more absolute expense for food was, but the rate of it was.

I. 序 論

우리 나라 도시 家計의 消費生活은 1962년에서 1986년에 걸친 5차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국민소득의 증대*1)와 더불어 質的·量的인 向上을

*1) 우리나라 1인당 GNP(In US dollar): 1975년(574 \$), 1980년(1,589 \$), 1985년(2,047 \$)

가져왔다.

消費生活의 向上은 食生活 內容面에서도 많은 변화를 초래하여 식품섭취량을 중심으로 조사한 보건사회부의 통계자료²⁾, 손등³⁾, 한⁴⁾의 연구결과에서는 쌀을 기본으로 한 곡류소비가 감소한 반면 육류, 난류 등의 동물성 단백질의 소비가 증가하는 이른바 食生活의 近代化 方向으로 개선되어 가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보고들은 식품섭취량이나 영양소 섭취상태를 중심으로 한 것으로서 소득의 변화에 따른 식품 소비구조의 변화를 파악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소득의 변화에 따른 식품 소비구조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食料品 消費需要의 分析이 必要하다.

食料品 消費需要의 分析은 소비자 행위*2) 중에서 소비행위에 해당되며*3) 그에 관한 연구는 이론적·경험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消費行爲에 관한 경험적 연구로는 E. Engel (1895)에서부터 J.M. Keynes, D.S. Brady와 R. D. Friedman(1947) 등의 家計分析 사례가 많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경제학*6,7)과 가정학분야*8~12)에서 소비구조에 관한 경험적 연구가 많이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는 한국가계의 전반적인 消費構造를 설명할 수는 있으나 家計費 中에서 支出의 비율이 가장 많은 품목이고 매일매일 지출되므로 물가와 수입에 가장 민감한 품목*13)인 食料品費의 세부적인 構造를 파악하는 데는 충분하지 않으며 그에 관한 연구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975년에서 1985년간의 time-series 자료 및 1985년의 소득계층별 cross-section 자료를 이용하여 시간의 경과에 따른 식품 품목별 소비지출액의 변화를 살펴본 다음 일시점에서의 소득수준의 차이에 따른 식품소비구조의 변화를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의 소득증대에 따른 식품 소비수요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자기 다른 소득수준에 있는 가정의 食生活 實態를 검토할 수 있는 資料가 되리라 생각한다.

II. 理論的 背景

食料品 消費를 결정하는 要因으로는 家計所得, 價格, 家族構成, 職業 및 地域性이 있다. 그러나 食料品費의 支出은 다른 商品의 消費와 마찬가지로 所得水準에 따라 그리고 食品의 價格에 의해 결정된다*14).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所得水準과 價格(물가)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소비자 행위는 소비행위와 구매 행위로 나눈다.

1. 所得

(1) 消費函數

消費函數理論은 消費支出이 所得간의 함수라는 가장 간단한 형태로 부터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소비함수는 Kyenes의 一般理論에서 定式化되어 投資函數의 決定要素로서 有效需要理論의 根幹을 이루었다*15). 물론 消費支出이 所得의 函數라는 見解는 그 후 미국에서 戰後經濟의 豫測을 둘러싼 豫測論爭과 뒤이어 전개된 消費函數論爭을 계기로 상당한 진통을 겪었지만 소비자의 소비지출규모를 결정하는 주요인으로서의 소득수준의 중요성이 낮아진 것은 아니다.

(2) 函數型

수요함수의 제측에는 하나의 어려운 점이 있다. 그것은 수요함수의 〈函數型〉이 理論的으로 확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효용함수의 적당한 함수형을 가정하고 거기서 적당한 수요함수형을 유도할 수 있다*16).

다른 方法으로는 수요함수의 函數型 그 자체를 직접 가정하여 제측할 수 있다. 이것은 ① 많은 data에 적합하고 ② 계산하기 쉬운 型에 중점을 두어 함수형이 결정된다. 이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함수형은 몇가지 의미에서 〈線型〉이 된다.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 ① 普通線型式 $q_1 = b_0 + b_1 y$
- ② 兩對數式 $\log q_1 = b_0 + b_1 \log y$
- ③ 片對數式 $q_1 = b_0 + b_1 \log y$
- ④ 對數逆數式 $\log q_1 = b_0 + b_1 / y$
- ⑤ 兩對數 2次式 $\log q_1 + b_1 \log y + b_2 (\log y)^2$
- ⑥ 兩對數逆數式 $\log q_1 = b_0 + b_1 \log y + b_2 / y$

이며 위 함수형의 彈性値는 〈표 1〉*16)과 같다.

(3) engel係數

독일의 통계학자 엥겔(Ernst Engel)의 家計調査結果 家計의 총지출을 100으로 하고, 그 가운데 차지하고 있는 食料品費의 비율에 의해서 생활정도를 〈표 2〉에서와 같이 나눈 것이다*17).

이렇게 消費支出構成의 變化에는 所得水準의 증

*3) 이러한 방향의 학자는 비교적 적지만, 대표적으로 A. Wald(1939)와 R. Frish(1939)가 있다.

〈표 1〉 각종 함수형과 탄성치

명칭	함수형	한계소비성향	소득탄성치	포화수준	포화수준에 대응한 소득수준	原式
普通線型式	$q_1 = b_0 + b_1 y$	b_1	$b_1 \frac{y}{q_1}$	∞	∞	$q_1 = b_0 + b_1 y$
兩對數式	$\log q_1 = b_0 + b_1 \log y$	$b_1 \frac{q_1}{y}$	b_1	∞	∞	$q_1 = B_0 y^{b_1}$
片對數式	$q_1 = b_0 + b_1 \log y$	$\frac{b_1}{y} \log_{10} e$	$\frac{b_1}{q_1} \log_{10} e$	∞	∞	$10^{q_1} = B_0 y^{b_1}$
對數逆數式	$\log q_1 = b_0 + \frac{b_1}{y}$	$-b_1 \frac{b_1}{y^2} \log_e 10$	$-\frac{b_1}{y} \log_e 10$	$\log^1 b_0$	∞	$q_1 = B_0 10^{\frac{b_0}{y}}$
兩對數 2次式	$\lg q_1 = b_0 + b_1 \log y + b_2 (\log y)^2$	$\frac{q_1}{y} (b_1 - \frac{b_2}{y} \log y)$	$b_1 + 2b_2 \log y$	$\log^{-1} (b_0 - \frac{b_1^2}{4b_2})$	$\log^{-1} (-\frac{b_1}{2b_2})$	$q_1 = B_0 y^{b_1 + \log y}$
兩對數 逆數式	$\log q_1 = b_0 + b_1 \log + (\frac{b_2}{y})$	$\frac{q_1}{y} (b_1 - \frac{b_2}{y} \log_e 10)$	$b_1 - \frac{b_2}{y} \log_e 10$	$\log_{10}^{-1} \{ b_0 + b_1 [\log_{10} (e / \log_{10} e)] + \log_{10} \frac{b_0}{b_1} \}$	$\frac{b_2}{b_1} \log_e 10$	$q_1 = B_0 y^{b_1} 10^{\frac{b_2}{y}}$

〈표 2〉 Engel係數

식료품비	生活程度
20% 未滿	高度文化生活
20~30 "	文化生活
30~50 "	健康生活
50~70 "	最低生活
70% 以上	窮乏生活

가가 큰 역할을 한다. 즉 家計에서는 現在의 生活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정수준이상의 支出이 필요하지 않는 支出項目은 전체의 消費水準이 향상됨에 따라서 그 구성비가 저하하게 된다. 즉 支出裁量도가 낮다. 반대로 支出裁量도가 높은 項目은 전체의 消費水準이 상승함에 따라서 그 구성비가 높아진다. 前者를 必需的 費目, 後者를 選擇的 費目이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어느 費目이 必需的 費目인지 選擇的 費目인지는 消費支出 彈性直(소비지출 총액이 1%증가할 때의 해당 비목의 增加率)를 계산함으로써 결정된다. 소비지출 탄성치가 1.0이상의 비목은 選擇的 費目, 1.0미만의 비목은 必需的 費目이다¹⁷⁾.

費目別 彈性直를 추이해 보면 시간이 흐름에 따

라 必需的 費目이 選擇的 費目으로 바뀌는 경향이 다¹⁸⁾.

2. 價格

일반적으로 어느 商品의 價格이 상승하면 그 消費量은 감소하고, 하락하면 증가한다. 동시에 그것과 代替·競合關係에 있는 商品의 消費量은 前者의 경우는 증가하고 後者의 경우는 감소한다.

III. 研究方法

1. 자료 및 분석대상품목

본 연구의 자료는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의 도시가계연보(1975~1985) 중에서 도시근로자 가구에 관한 자료이다.

도시가계연보는 1963년 이래 매년 전국의 전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표본가구를 층화표집 및 확률 비례 계통표집을 하여 소득 및 소비지출등에 대해서 면접 또는 피조사원의 1일기장방식에 의해 조사 수집된 것이다.

이 중 도시근로자 가구는 1975년 972가구, 1980

년 2,458가구, 1985년 2,667가구이다. 그런데, 이 자료는 최고소득계층가계와 최저소득계층가계가 포함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료상의 제약이 있으나 현재로서는 가장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家計調査資料이다.

분석대상품목은 연도에 따라 약간 다른 경우도 있으나 총식료품비 중에서 곡류, 육류, 유란, 어개류, 채소 및 해초, 과일, 유지 및 조미료, 빵 및 과자류, 음료, 주류, 의식, 식품관련서비스*4) 등 12대 품목으로 나누었다.

2. 推定式

本 研究에서는 消費函數의 推定을 통하여 都市家計의 食料品 消費形態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용한 推定式은 다음과 같다.

$$\text{Cit} = \text{ait} + \text{bit } Y_t + \text{ui} \quad \dots \textcircled{1}$$

$$\log \text{Cit} = \text{ait} + \text{bit } \log Y_t + \text{ui} \quad \dots \textcircled{2}$$

①식의 회귀계수 bit는 限界消費性向이며 ②식의 회귀계수 bit는 所得彈力性이다.

물론 두 推定式에서 다같이 限界消費性向과 所得彈力性을 推定할 수 있다*5). ①식의 回歸方程式은 R.G.D. Allen과 A.L. Bowley¹⁹⁾이래, ②식은 R. Stone²⁰⁾(1954), Prais, S.J. & H.S. Houthaker²¹⁾, L. Jurée²²⁾ 그리고 그 밖의 학자들에 의해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다.

따라서 本 研究에서는 ①식에서 限界消費性向을 ②식에서 消費需要의 所得彈力性을 推定하였다.

3. 分析方法

① 먼저 1975년에서 1985년간의 식료품 품목별 소비지출액 및 식품군별 섭취량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 자료를 이용하여 線型과 兩對數型의 推定式에 따라 食料品 品目別 限界消費性向과 所得彈力性을 推定하였다.

② 1985년 소득계층별 cross-section 자료를 이용하여 총 식료품비에 대한 식료품 품목별 1인당

*4) 식품관련 서비스: 떡방아쌈, 고추가루 빵은 삶, 참기름 짜는 삶 등

*5) ①식의 所得彈力性은 $\text{bit} \frac{Y_t}{\text{Cit}}$ 이며 ②식의 限界消費性向은 $\text{bit} \frac{Y_t}{\text{Cit}}$ 이다.

소비지출비율을 측정하고 이것을 이용하여 소득계층별 食料品 消費構造를 分析하였다.

IV. 년도별 식료품소비지출

1. 가계소득과 소비지출의 변화

먼저 식료품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물가, 소득, 소비지출의 변화에 따른 추이를 보면 <표 3>과 같다.

'75년에서 '85년사이의 물가동향은 성장통화공급에 따른 초과수요압력과 농수산물의 수급불안정 및 1차석유파동으로 야기된 해외 「인플레이」가 국내에 유입되어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80년에는 농작물의 흉작, 2차석유파동 등이 겹쳐 30%에 이르는 「인플레이」를 기록하기도 하였으나 82년 이후부터는 점차 안정되고 있는 추세이다.

가계지출의 원천인 가처분소득은 높은 물가상승율에도 불구하고 11년간 평균 7.24% 상승하였으며, 78년에는 1차석유파동 이후 가장 높은 상승율을 보였고 특히 물가상승율이 높았던 '80년과 '81년에는 오히려 감소하였다가 물가가 안정된 '82년부터는 점차 상승하고 있다.

또한 가처분소득 중에서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율, 즉 평균소비성향은 1975년 90.4%에서 1985년에는 76.5%로 물가상승율이 높았던 '80년과 '81년을 제외하고 계속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소득과 소비지출의 추이는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실시, 정부의 물가안정정책 등으로 우리나라 도시근로자 가계의 소비수준이 향상하고 있음을 보여줄 뿐만아니라 $C=f(Y)$ 의 함수관계를 갖는 소득과 소비의 관계에 있어서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소비지출의 절대액은 증가하나 평균소비성향은 반대로 감소한다는 Keynes J.M.의 소비함수이론을 잘 반영하고 있다.

1975년~1985년간의 한계소비성향과 소비수요의 소득탄성치를 推定式 ①과 ②식에서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6).

$$C = 33122.1(9.666) + 0.6411 Y(42.14)$$

$$R^2 = 0.9947$$

*6) 이를 위하여 모든 實績値를 1980년 불변가격 기준의 전도시 소비자 물가지수로 deflate 하였다.

〈표 3〉 물가·소득·소비지출의 변화

연도	물가		가처분소득(Y)		소비지출(C)		평균 소비성향	가구원수
	총지수	상승율(%)	금액(원)	상승율(%)	금액(원)	상승율(%)		
1975	45.2	—	139,270	—	125,862	—	90.4	5.15
1976	52.1	15.3	161,035	10.3	136,564	8.5	84.4	5.05
1977	57.4	10.1	177,578	10.3	144,303	5.7	81.3	4.76
1978	65.7	14.4	212,416	19.5	167,128	15.8	78.8	4.68
1979	77.7	18.3	242,116	14.1	187,023	11.9	77.2	4.64
1980	100.0	28.9	225,979	-6.7	175,471	-6.2	77.6	4.54
1981	121.3	21.3	222,934	-1.3	175,946	-0.3	78.9	4.54
1982	130.1	7.3	231,158	3.7	183,783	4.5	79.5	4.39
1983	134.5	3.4	255,066	10.3	196,622	7.0	77.1	4.34
1984	137.6	2.3	274,911	7.8	209,590	6.6	75.2	4.24
1985	141.0	2.5	286,974	4.4	219,579	4.8	76.5	4.18

주 : (1) 모든 금액은 전 도시 소비자 물가지수로 deflate 하였다(1980=100)

(2) 자료 : 경제기획원, 도시가계연보, 도시근로자가계(1975~1985)

경제기획원, 한국통계연감, 도시소비자 물가지수(1975~1985)

$$\log C = 1.0644 + 0.7820 \log Y$$

$$(2.75) \quad (9.40)$$

$$R^2 = 0.99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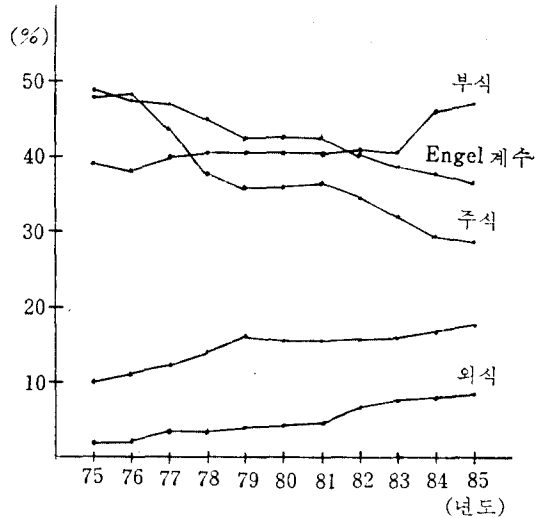
()안의 수치는 t값이며, 모든 추정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그러므로 1975~1985년간 한계소비성향은 0.6411로서 설*7)의 1963~1975년간의 추정치인 0.8215보다 낮아졌다. 소득탄력성은 0.7820으로 설*7)의 0.8215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아졌으므로 1963~1975년간 보다 1975~1985년간의 도시가계가 소득의 증감에 따라 소비지출이 상대적으로 안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食料品消費支出의 變化

식료품비의 지출은 경제적 가치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과 직결해 있으므로 필수적이지만, 그것이 충족되면 그 이상은 필요하지 않게 된다.

결국, 가계비에 대한 식료품비의 비율은 소득상승과 함께 저하한다는 Engel의 법칙을 받아들여 소비는 오락성이 강한 분야로 지출되어 진다. 그러



〈그림 1〉 식료품 품목별 소비지출 구성비의 변화

나 총식료품비는 소득이 상승함에 따라 Kcal당 보다 비싼 식품을 섭취하게 되므로 증가한다. 우리나라 도시근로자 가계도 〈표 4〉와 〈그림 1〉에서와 같이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Engel 계수는 1975년 48.9%에서 1985년 36.8%로 낮아졌으나 일본의 28.1%에 비하면²³⁾ 아직 높은 실정이며, 엔겔계수에 의한 우리나라 도시근로

*7) 본 연구와 설봉식의 연구대상과 연구방법은 동일하다.

〈표 4〉 도시근로자가계의 식료품 품목별 소비지출의 변화

연도	Engel 계수	주식 (품류)	부				식				기 호 식 품			외식	총식료품비 (구성비)
			유류	유란	어개류	채소· 해조	유지 및 조미료	빵 및 과자류	음료	주류	파식				
												음료	주류		
1975	48.9	48.3	7.6	3.3	7.2	12.1	8.8	4.1	0.4	2.0	3.7	2.0	61,570(100)		
1976	47.6	48.1	7.8	3.4	7.6	11.1	8.4	3.8	1.3	2.1	3.8	2.1	56,439(100)		
1977	46.9	43.9	8.3	3.4	7.5	13.4	7.7	3.8	1.7	2.8	4.1	3.2	65,345(100)		
1978	45.1	37.9	9.8	3.8	8.2	12.6	10.0	3.8	2.2	3.1	5.1	3.3	71,355(100)		
1979	42.3	35.9	10.4	4.0	8.0	12.3	8.5	4.3	2.6	3.8	5.4	4.0	77,767(100)		
1980	42.6	35.9	9.6	4.0	8.2	13.4	8.7	4.5	2.3	3.5	5.4	4.2	74,739(100)		
1981	42.3	36.2	9.7	4.3	8.0	13.0	8.5	4.5	2.1	3.3	5.4	4.5	70,776(100)		
1982	40.7	34.4	10.8	4.4	7.6	11.8	8.1	4.9	2.2	2.2	6.1	6.6	74,409(100)		
1983	38.8	32.0	11.9	4.6	8.0	12.4	7.2	5.4	2.3	1.8	6.4	7.2	77,442(100)		
1984	37.6	29.5	11.4	5.1	8.5	13.0	8.0	5.6	2.7	1.6	6.4	7.7	80,769(100)		
1985	36.8	28.5	12.0	5.1	8.4	12.5	9.0	6.0	3.0	2.0	6.2	8.1	81,730(100)		

주: (1) 총 식료품비는 도시소비자 물가지수중 식료품의 지수로 deflate 하였다(1980=100).

(2) 자료: 경제기획원, 도시가계연보, 도시근로자가계(1975~1985)

〈표 5〉 식품군별 섭취량

(단위 : g)

년도	식물성 식품						동물성 식품						총 계					
	곡 및 제	콩 및 제	류 그 품	감자류	야채류		과실류	해조류	조미료·주·음료	유지류	육류	난류		어패류		유류	유지류	
					신선류	가공류								신선류	가공류			
																		신선류
1975	449.3	31.3	32.7	157.8	85.45	34.1	2.4	15.9	3.7	24.0	8.8	55.2	11.7	9.3	0.1	812.9	109.1	922.0
1976	452.4	31.9	39.0	192.7	80.2	58.2	3.7	19.6	4.3	12.4	8.2	43.9	11.2	8.2	0.4	881.8	84.3	966.1
1977	486.8	48.2	31.9	159.0	125.4	46.9	3.0	17.5	7.3	17.7	7.9	40.7	14.3	12.4	1.0	925.8	94.0	1019.7
1978	380.0	29.9	19.6	145.9	85.8	75.7	2.9	22.4	4.8	25.2	14.5	48.2	7.0	17.7	0.1	767.0	112.7	879.7
1979	413.8	37.5	19.6	203.4	78.5	30.5	3.8	16.8	5.0	31.7	16.3	65.8	17.2	15.4	0.0	808.8	141.3	950.2
1980	449.8	55.4	23.9	142.2	131.2	41.9	2.3	26.4	5.1	19.4	11.8	68.3	9.9	15.9	0.0	878.2	125.3	1003.5
1981	433.8	57.9	22.4	117.1	118.9	39.9	4.5	25.2	5.5	22.4	10.8	67.9	11.0	15.5	0.1	827.0	127.7	954.7
1982	422.7	56.3	19.9	141.9	111.9	45.4	4.4	17.1	5.2	22.2	12.3	75.8	29.8	24.8	0.1	824.8	164.9	989.7
1983	415.3	71.3	25.9	136.3	117.0	88.6	3.3	24.3	4.9	25.5	15.6	67.1	28.6	22.8	0.4	886.9	160.0	1046.9
1984	400.6	67.9	31.5	125.0	103.2	82.6	3.9	23.5	6.4	32.7	17.0	63.7	27.6	31.0	0.1	844.6	172.0	1066.6
1985	363.01	86.5	33.9	124.6	116.5	82.2	3.5	21.0	7.1	45.3	25.3	58.9	27.1	60.6	0.2	838.2	217.3	1055.5

주 : (1) 도시 평균 1인 1일당 섭취량

(2) 자료 : 보건사회부, 국민영양보고서 (1975~1985)

자 가계의 1985년 생활정도는 건강생활정도이다.

총식료품지출액은 1980년 불변가격으로 1975년 61,570원에서 1985년 81,730원으로 33% 증가하였으며 구성면으로서는 1975년 주식 48.3%, 부식 30.2%, 기호식품 8.4%에서 1985년 주식 28.5%, 부식 47.0%, 기호식품 17.2%로 주식과 부식의 비중이 바뀌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주식에 부족된 영양소를 보충하므로 풍부한 섭취를 요구하는 부식비의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근로자가구의 식생활구조가 향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외식의 구성비가 1975년 2.0%에 불과하였으나 1985년에는 8.1%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외식은 과다한 열량과 염분을 섭취하여 영양상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보고²⁴⁾가 있으므로 가계의 식료품비 지출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점이지만, 주부의 취업증가와 가정의 기능이 사회의 산업화로 인해 물질적, 기능적 기능이 축소되고 정신적, 문화적 기능이 중요시되고 있는 경향²⁵⁾이므로 앞으로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외식산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관리가 요망된다.

1인 1일당 식품군별 섭취량을 살펴보면 <표 5>과 같다.

도시가계의 1인 1일당 식품군별 섭취량은 조사 지역 및 계절적인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동물성식품의 섭취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1975년과 1985년의 섭취량을 비교하면 곡류는 449.3g에서 363.0g으로 줄어 들었으나 과일류는 34.6g에서 82.2g으로 증가하였다. 우리나라 국민에게 아직 부족한 동물성단백질과 지방의 공급원인 육류, 유류, 난류의 섭취량은 1975년 24.0g, 9.3g, 8.8g에서 1985년 45.3g, 60.5g, 25.3g으로 각각 증가하였다. 이러한 식품의 섭취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1975년에서 1985년간의 식료품 품목별 소득탄력성과 한계소비성향을 추정하기 위하여 ②식과 ①식에 따라 추정한 결과*8) 곡류, 육류, 어개류, 빵 및 과자류, 주류, 외식을 제외한 품목은 결정계수

*8) ②식과 ①식의 R²: 곡류(0.991, 0.994), 유란(0.106, 0.152), 육류(0.800, 0.822), 어개류(0.953, 0.938), 채소 및 해초(0.223, 0.133), 과일(0.303, 0.382) 유지 및 조미료(0.493, 0.644), 빵 및 과자류(0.914, 0.875), 음료(0.522, 0.521), 주류(0.945, 0.938), 외식(0.899, 0.968), 식품관련서비스(0.039, 0.053)

가 너무 낮아서 추정이 불가능하여 모든 품목을 비교할 수가 없으므로 <표 6>에서와 같이 각 연도마다 식료품 품목별 소득탄력치를 분석모형 ②식에 따라 추정하여 그 변화를 관찰하였다.

모든 추정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와 같은 품목별 소비의 소득탄력성으로 품목별 긴요도(dearness)를 측정할 수 있다. 布施好夫²⁶⁾(이기영, 1973, 재인용)는 생활수준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승하는 경향이였으며 경제발전초기에는 긴요도가 낮았던 품목도 소득이 향상됨에 따라 점점 긴요도가 높아져 생활필수품으로 변화하는 경향이 높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생활수준이 향상되면 일정수준이상의 지출이 필요하지 않는 항목은 총식료품비 중에서 구성비가 감소하고, 支出裁量도가 높은 지출항목은 총식료품지출액이 상승함에 따라서 구성비가 높아진다. 전자를 필수적 소비지출 즉 긴요도가 높다고 하고, 후자는 선택적 소비지출 즉 긴요도가 낮다고 한다.

1975년에는 과일류, 외식 등의 품목이 선택적 품목이었으나, 과일류는 실질소득수준이 낮았던 1980년을 제외하고 1976년이후 부터, 외식은 1984년이후 부터 각각 필수적 품목으로 바뀌었다. 식료품 소비지출에 대한 소득탄력성은 모든 품목에서 연차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현상을 보였으나 1980년에는 일시적으로 높았다. 이것은 1980년이 2차석 유파동, 농작물의 흉작 등으로 실질소득수준이 낮았던 것에서 기인한다고 하겠다.

식료품 품목별 한계소비성향을 분석모형 ①식으로 추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모든 추정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01$).

V. 所得階層別 食料品 消費支出

1. 소득계층별 가계수지

먼저 소득계층별 가계수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도시근로자가계의 월평균 소득수준을 5계층으로 등급하여 각 계층별 특징을 살펴 보았다(<표 8>).

평균소비성향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낮아지는 경향이였으며 영결의 범칙중에서 제 1법칙 즉 소득이 높아질수록 식료품비의 상대적 비중은 낮아진다.

〈표 6〉 식료품 품목별 소득탄력성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곡	0.416 (18.94)	0.314 (16.04)	0.275 (13.23)	0.272 (14.28)	0.333 (25.02)	0.576 (7.99)	0.302 (34.13)	0.261 (20.39)	0.218 (14.38)	0.233 (15.51)	0.309 (7.63)
유	0.988 (7.49)	0.931 (19.71)	0.821 (24.31)	0.646 (28.98)	0.577 (37.78)	1.293 (9.56)	0.607 (17.94)	0.649 (31.08)	0.649 (26.23)	0.563 (14.20)	0.579 (17.32)
육	0.925 (31.77)	0.871 (23.50)	0.810 (34.74)	0.567 (17.24)	0.649 (37.23)	0.879 (13.35)	0.650 (24.50)	0.789 (37.71)	0.732 (30.61)	0.657 (16.58)	0.650 (10.29)
어	0.925 (31.77)	0.871 (23.50)	0.810 (34.74)	0.567 (17.24)	0.649 (37.23)	0.879 (13.35)	0.680 (24.50)	0.590 (31.73)	0.550 (19.77)	0.542 (16.71)	0.560 (13.60)
·채소 및 해초	0.688 (15.93)	0.584 (22.34)	0.547 (20.88)	0.451 (46.54)	0.469 (47.42)	0.451 (41.32)	0.418 (33.58)	0.396 (37.01)	0.365 (18.77)	0.257 (5.38)	0.348 (15.50)
과	1.019 (18.43)	0.996 (26.73)	0.993 (30.24)	0.875 (24.28)	0.751 (24.49)	1.039 (11.70)	0.681 (25.76)	0.593 (7.62)	0.621 (25.17)	0.543 (17.51)	0.650 (7.52)
유지 및 조미료	0.876 (23.09)	0.675 (19.37)	0.588 (21.75)	0.557 (28.94)	0.557 (28.94)	0.341 (8.22)	0.464 (29.99)	0.447 (28.54)	0.406 (18.01)	0.408 (16.81)	0.348 (5.58)
빵 및 파카류	0.707 (15.85)	0.735 (27.15)	0.660 (28.05)	0.567 (28.95)	0.601 (22.64)	0.178 (2.68)	0.567 (15.22)	0.527 (44.78)	0.525 (32.60)	0.469 (16.69)	0.442 (10.19)
음	0.707 (15.85)	0.735 (27.15)	0.660 (28.05)	0.567 (28.95)	0.601 (22.64)	0.178 (2.68)	0.567 (15.22)	0.753 (28.31)	0.709 (18.90)	0.593 (13.44)	0.645 (14.96)
주	0.513 (11.11)	0.499 (10.97)	0.641 (10.54)	0.499 (10.97)	0.561 (15.13)	0.884 (14.05)	0.570 (13.21)	0.405 (14.73)	0.344 (10.16)	0.254 (4.82)	0.254 (5.72)
외	1.173 (30.57)	1.081 (19.56)	1.204 (20.89)	1.143 (20.31)	1.145 (20.32)	1.866 (19.81)	1.089 (18.50)	1.074 (29.62)	1.004 (26.72)	0.852 (10.93)	0.850 (0.05)
식품관련서비스	0.846 (8.07)	0.880 (9.73)	0.811 (13.50)	0.570 (8.92)	0.581 (8.81)	2.151 (7.69)	0.570 (10.93)	0.589 (15.19)	0.450 (7.10)	0.461 (8.22)	0.846 (10.62)
총식료품비	0.622 (36.16)	0.534 (21.40)	0.526 (44.91)	0.514 (47.23)	0.511 (49.49)	1.043 (10.21)	0.514 (11.04)	0.501 (46.17)	0.464 (24.49)	0.436 (16.14)	0.445 (11.73)

註(1) 계산은 $\log Cit = \text{ait} + \text{bit} \log Yt$ 에 의한다.

(2) () 내의 수자는 t 값임.

(3) 추정치는 99%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4) 분석자료 : 경제기획원, 도시가계연보, 도시근로자가계 (1975~1985)

〈표 7〉 식료품 품목별 한계소비성향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곡	0.076 (8.31)	0.055 (11.09)	0.027 (6.29)	0.037 (5.81)	0.033 (9.19)	0.212 (10.06)	0.032 (12.65)	0.020 (7.57)	0.016 (6.54)	0.018 (9.73)	0.032 (8.92)
유	0.013 (8.58)	0.012 (19.40)	0.009 (13.30)	0.009 (18.46)	0.009 (18.46)	0.044 (11.18)	0.010 (13.83)	0.007 (12.52)	0.008 (12.22)	0.007 (13.30)	0.008 (12.56)
육	0.052 (18.26)	0.049 (18.80)	0.036 (19.25)	0.037 (12.59)	0.037 (29.36)	0.054 (9.30)	0.037 (26.62)	0.026 (27.30)	0.024 (28.04)	0.022 (24.82)	0.024 (29.51)
어	0.052 (18.26)	0.049 (18.80)	0.036 (19.25)	0.037 (12.59)	0.037 (29.36)	0.054 (9.30)	0.037 (26.62)	0.013 (16.55)	0.011 (11.61)	0.013 (18.26)	0.016 (16.25)
채소 및 해초	0.030 (9.66)	0.022 (12.32)	0.017 (8.96)	0.016 (8.84)	0.016 (12.95)	0.014 (12.14)	0.015 (13.33)	0.011 (10.84)	0.011 (8.58)	0.006 (2.70)	0.015 (13.06)
과	0.017 (23.69)	0.015 (31.39)	0.014 (30.27)	0.012 (24.52)	0.013 (32.40)	0.023 (8.64)	0.012 (28.15)	0.012 (10.50)	0.010 (12.52)	0.009 (8.94)	0.014 (4.29)
유지 및 조미료	0.033 (17.09)	0.021 (13.21)	0.012 (12.55)	0.017 (9.14)	0.014 (11.44)	0.007 (6.93)	0.012 (12.43)	0.009 (11.38)	0.007 (7.68)	0.009 (10.11)	0.009 (2.72)
빵 및 과자류	0.016 (19.34)	0.014 (22.99)	0.010 (14.97)	0.011 (11.88)	0.012 (31.98)	0.016 (24.84)	0.013 (38.91)	0.007 (16.44)	0.007 (14.47)	0.007 (12.13)	0.008 (17.65)
음	0.016 (19.34)	0.014 (22.99)	0.010 (14.97)	0.011 (11.88)	0.012 (31.98)	0.016 (24.28)	0.013 (38.91)	0.005 (15.16)	0.004 (9.99)	0.004 (10.54)	0.005 (14.97)
주	0.005 (13.38)	0.005 (13.06)	0.003 (8.52)	0.003 (11.98)	0.007 (15.69)	0.014 (17.44)	0.006 (15.55)	0.003 (23.64)	0.002 (18.97)	0.002 (8.13)	0.002 (4.16)
외	0.011 (22.69)	0.009 (20.16)	0.012 (18.76)	0.013 (23.73)	0.015 (33.88)	0.007 (13.10)	0.017 (24.40)	0.023 (11.03)	0.019 (24.44)	0.020 (20.50)	0.021 (21.27)
식품관련서비스	0.002 (11.29)	0.002 (10.80)	0.956 (8.54)	0.929 (8.37)	0.888 (17.49)	0.019 (12.61)	0.685 (17.34)	0.499 (10.66)	0.385 (7.76)	0.344 (6.98)	0.491 (12.59)
총 식료품비	0.263 (17.88)	0.210 (17.33)	0.147 (14.93)	0.153 (11.68)	0.161 (19.20)	0.639 (15.59)	0.157 (6.63)	0.133 (16.61)	0.121 (13.44)	0.123 (16.04)	0.148 (16.67)

주 : (1) 계산은 $Cit = ait + bit \log Yt$ 에 의한다.

(2) 추정치는 99% 수준에서 유의함.

(3) ()안의 수치는 t값임.

(4) 자료 : 경제기획원, 도시근로자가계 (1975~1985년)

〈표 8〉 소득 5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

	I	II	III	IV	V	평균
가구당 인원수(인)	3.61	3.88	4.26	4.44	4.72	4.18
가 처 분 소 득(원)	112,738	259,838	394,678	541,787	885,783	430,736
총 소비 지 출(원)	163,248	119,106	318,542	416,405	625,688	338,881
식 료 품(%)	44.1	42.3	38.9	37.1	32.9	39.2
주 거	7.6	6.6	3.9	3.7	3.5	5.1
광 열 · 수 도	10.2	10.1	9.1	8.7	7.9	9.2
가 구 · 가 사 용 품	3.6	3.9	4.6	4.9	6.1	4.6
피 복 · 신 발	6.1	7.4	8.2	8.9	9.3	8.0
보 건 · 의 료	6.4	5.6	7.3	6.9	8.2	6.9
교 육 · 교 양 · 오락	5.6	5.9	7.1	7.9	8.4	7.0
교 통 · 통 신	6.6	6.5	5.9	5.9	5.1	6.0
기 타 · 소비 지 출	10.2	11.6	14.1	15.9	18.7	14.1

자료 : 도시가계연보, 도시근로자가계(1985년)

제 4 법칙 즉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기타 文化費의 상대적 비중은 높아진다.

Schwabe의 법칙 즉 家計所得이 증대함에 따라 住居費에 대한 支出額은 체증하지만, 그것이 全支出額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체감한다. Ogburn의 법칙 즉 피복비는 사치적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收入增加에 따라 그 비율이 증가된다는 것에 잘 적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 소득계층별 식료품 소비형태

소득계층별 식료품 소비형태는 식료품 품목별 지출비율에 의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a라는 식품에 대한 지출비율이 다른 계층에 비해 A계층에서 특별히 높다면 우리는 그 식품에 대해서 A계층에서 소득효과*9)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총식료품지출액에 대한 식료품 품목별 지출비율은 소득계층별로 1인당 총식료품지출액과 식료품 품목별 지출액을 산출한 후 식료품 품목별 지출액을 총식료품지출액으로 나누어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9〉와 같다.

1인당 총식료품비는 I계층이 19,944원이며 V계층이 43,584원으로 I계층에 비해 V계층이 2.19배 높았다.

I계층에 비해 V계층의 지출구성비가 가장 큰 것은 외식비로 2.43배였으며 그 다음이 육류로 1.53배, 과일 1.39배, 유란 1.32배의 순이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품목이 소득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I계층에 비해 V계층의 지출구성비가 적은 품목은 곡류, 채소·해초, 유지 및 조미료였다.

V계층에 대한 I계층의 지출비율과 1985년의 식료품 품목별 소득탄력성과의 관계를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그림에서 보면 지출격차와 소득탄력성과는 엄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탄력성이 큰 외식, 음료, 육류, 과일, 유란, 어개류는 지출격차도 크다*10)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식료품 품목별 지출액과 소득수준과의 상관관계를 밝히기 위하여 Pearson의 積率相關關係分析³¹⁾ (Pearson product-moment correlation)을 행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소득수준과 육류, 유란, 채소·해초, 과일, 외식, 유지 및 조미료, 빵 및 과자류, 음료의 소비 지출액과는 正的 相關關係가 있었다. 즉 이러한 품목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그 소비지출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득과 식품관련서비스와는 負的인 相關關係가 있었는데 이것은 소득이 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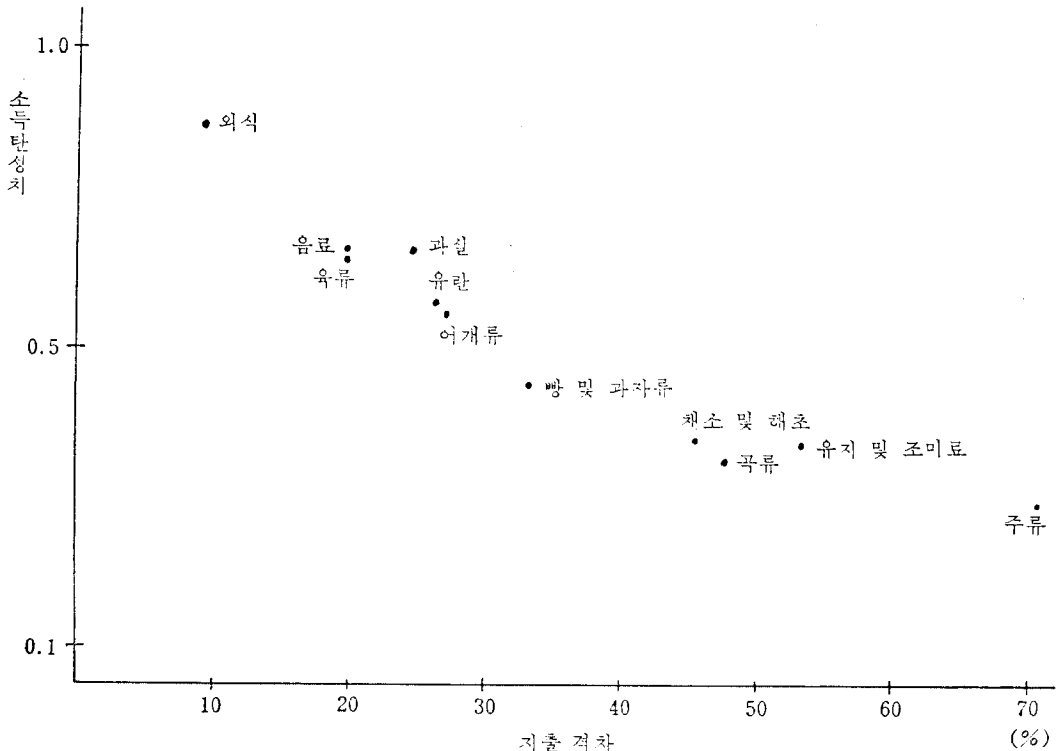
*9) 여기서의 소득효과는 어떤 상품이 다른 상품에 비해 특히 소득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10) 지출격차가 크다는 것은 V분위계층의 식품지출에 비해 I분위계층의 식품지출비율이 적은 것을 말한다.

〈표 9〉 소득 5분위별 1인당 식료품비의 지출비율(% , 원)

		I	II	III	IV	V
곡	류	36.6	32.1	30.4	29.1	27.5
유	란	3.8	4.6	4.9	5.1	5.0
육	류	8.5	8.8	10.6	11.0	13.0
어	개	7.4	8.3	8.7	9.5	9.5
채	소·해	15.7	15.2	14.1	13.4	12.2
과	실	4.6	5.4	5.6	5.9	6.4
유지 및	조미료	10.1	10.6	9.4	8.5	6.5
빵 및	과자류	5.6	5.3	5.2	5.3	5.7
음	료	1.6	2.1	2.2	2.3	2.6
주	류	2.2	1.5	1.3	1.1	1.1
외	식	4.2	5.8	7.3	8.7	10.2
식품관련서비스		0.1	0.2	0.2	0.2	0.2
총 식료품비		19,944 (100)	25,002 (100)	29,770 (100)	34,827 (100)	43,584 (100)

자료 : 경제기획원, 도시가계연보, 도시근로자가계 (1985)



〈그림 2〉 所得彈力性과 支出格差

- 주) (1) 지출격차는 V분위에 대한 I분위의 지출비율
- (2) 소득 탄력성은 $\log C_i = a_i + b_i \log Y$ 에 의한다.
- (3) 자료 : 경제기획원, 도시가계연보, 도시근로자가계 (1985)

〈표 10〉 소득과 식료품 품목별 소비지출액의 상관관계

	곡류	육류	유란	어개류	채소· 해초	과실	외식	유지 및 조미료	빵 및 과자류	음료	주류	식품관련 서비스
소득	0.391	0.907 ^{***}	0.969 ^{***}	0.366	0.618 [*]	0.803 ^{***}	0.936 ^{***}	0.722 ^{***}	0.969 ^{***}	0.984 ^{***}	0.232	-0.770 ^{**}

註) (1) 모든 금액은 도시소비자 물가지수로 deflate 하였다(1980=100).

(2) * $p < 0.05$, ** $p < 0.01$, *** $p < 0.001$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함.

(3) 분석자료 : 경제기획원, 도시가계연보, 도시근로자가계 (1985)

을수록 가공식품을 이용하고 직접 식품을 가공하는 것은 꺼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VI. 結 論

도시근로자 가계의 식료품 소비지출구조에 관하여 본고에서 조정한 12대 비목을 기준으로 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1975~1985년까지 시계열분석 및 횡단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Engel 계수는 1975년 이래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가구당 월평균 총식료품비는 1980년 불변가격으로 1975년 61,570원에서 1985년 81,730원으로 증가하여 우리나라 도시근로자 가계의 생활정도의 향상과 더불어 식생활 내용면에서도 많이 향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분석모형 ②식에 따라 식료품 품목별 소득탄력성을 추정하여 품목별 기인도를 추정한 결과 1975년에는 선택적 품목이었던 과실, 외식이 과실은 1976년, 외식은 1984년부터 필수적 품목으로 바뀌었다.

품목별 탄성치는 1975년과 1985년을 비교하면 곡류는 0.416에서 0.309로, 유란은 0.988에서 0.579로, 육류는 0.925에서 0.650으로 채소 및 해초류는 0.688에서 0.348로, 과실류는 1.019에서 0.650으로 빵 및 과자류는 0.707에서 0.442로 외식은 1.173에서 0.850으로 낮아졌으므로 우리나라 도시근로자 가계의 식료품 소비지출이 소득에 대해 안정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식료품 품목별 한계소비성향도 1975년에 비해 1985년에는 거의 모든 품목에서 낮아졌다.

2. 1985년 기준으로 소득계층별 식료품 소비구조를 분석한 결과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식료품비의 절대액은 증가하였으나 그 구성비는 감소하여 En-

gel의 법칙을 잘 반영하고 있었다.

총식료품비에 대한 식료품 품목별 지출비율을 계산한 결과는 지출격차가 가장 큰 품목 즉 I계층에 비해 V계층의 지출비율이 가장 큰 품목은 외식으로 2.43배였다. 그 다음이 음료, 육류, 과실, 유란의 순으로 각각 1.63배, 1.53배, 1.39배, 1.32배였다.

소득과 식료품 품목별 지출액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正的인 상관관계가 있는 품목은 육류, 유란, 채소, 해초, 과실, 외식, 유지 및 조미료, 빵 및 과자류, 음료였으며, 負的인 상관관계가 있는 품목은 식품관련서비스였다.

이상으로 1975~1985년간의 소득변화에 따른 식료품 소비구조의 분석 결과 가장 많은 변화를 초래한 품목은 외식과 과실류의 소비지출이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식생활 구조의 향상을 나타내주며, 아울러 外食산업에 대한 국가적 배려가 요청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소비지출의 결정요인중에서 식료품비의 지출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소득과 물가를 중심으로 식료품비의 구조를 분석하였으므로 식료품비의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과의 관계는 고려하지 않은 제한점이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가계조사에서 나타나지 않는 life cycle이나 식생활관리자의 자질을 고려한 분석도 필요하리라고 본다.

REFERENCES

1. 경제기획원 : 경제통계연감, 1975~1985
2. 보건사회부 : 국민영양조사보고서, 1975~1985
3. 손경희, 문수재, 이일하 : 산업화에 의한 한국인 식품소비패턴 변화와 영양문제, 대한가정회지, 22(4), 1984, 113~119.

4. 한양일, 김을형, 이규한 : 우리나라의 식품 및 영양소 섭취의 변화에 대한 고찰, 식량영양학회지, 12(2), 1983, 137~145.
5. 吉田正昭 등 : 消費者行動의理論, 丸善株式會社, 1969.
6. 黃義瑀 : 都市 및 農村家計消費支出의 分析, 고려대학교, 社會科學論集, 1, 1972, 67~82.
7. 설봉식 : 韓國家計의 消費行爲, 創文閣, 1978.
8. 강선자 : 1960년도 전도시 근로자가구의 소비지출의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10(2), 1972, 54~62.
9. 김순옥, 신효식 : 전도시 근로자가계의 소비구조 변동에 관한 연구 1970~1978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18(4), 1980, 65~73.
10. 박명희 : 전도시 근로자 가계 소비구조의 동태적 분석 1970~1976, 한성대학논문집, 2, 1978, 99~113.
11. 이기춘 : 우리 나라 근로자 가계의 소비구조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가정대학논문집, 3, 1978, 1~14.
12. 윤정혜 : 도시 및 농촌가계의 소비지출 구조의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 1984, 85~100.
13. 朴惠敬 : 家庭經濟學, 博英社, 1980.
14. 西垣一郎 : 家庭經濟概論, 明文書房, 1980.
15. J.M. Keynes: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1936.
16. 唯是康彦 : 食料의經濟分析, 同文書院, 1977.
17. 大川一司 : 食糧經濟의理論計則, 日本評論社, 1945.
18. 經濟企畫廳 : 國民生活白書, 1986.
19. Allen, R.G.D. & A.L. Bowley; Family Expenditure, London Staples, 1935.
20. Stone, R.: The Measurement of Consumers Expenditure and Behaviour in the United Kingdom 1920~1938, 1, Cambridge University, 1954.
21. Prais, S.J. & H.S. Houthakker: The Analysis of Family Budget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55.
22. Jurée, L.: Long-term Trend of Food Consumption, Econometrica, 24(1), 1956.
23. 總務廳統計局 : 家計調査, 都市勤勞者世帯, 1985.
24. 平山昌子 : 外食に關する 研究, 榮養學雜誌, 39(6), 1981. 168~176.
25. 張明郁 : 家庭管理學, 敎文社, 1985.
26. 이기영 : 전도시 근로자가구의 소비구조분석 1963~1971,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3.
27. 吳澤燮 : 社會科學데이터 分析法, 나남, 1986.